



29Page



30Page



31Page



32Page

바벨탑

-다섯 번째 이야기-

나 레 이 셴 노아의 홍수 이후, 시간이 많이 흐른 어느 날이었어요.
세상에는 노아의 자손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다 같이 함께 살면서 같은 말을 쓰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점점 동쪽으로 옮겨가면서 살다가 시날 땅의 어느 들만에 모여 살게 되었어요.

아 저 씨 1 아이고! 김사장! 석류는 많이 팔았는데!

아 줌 마 1 아이고! 박사장! 못 팔았으니까 잔뜩 들고 있지! 하하하
(약자지절 사람들 떠드는 소리)

나 레 이 셴 사람이 많이 모여 살면서 마을도 점점 커졌어요. 벽돌로 튼튼한 집도 짓고 먹을 것도 풍성했어요.

아 저 씨 2 우리 벽돌로 아주 아주 큰 집을 한 번 지어볼까?

나 레 이 셴 사람들에게 지혜가 생길수록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도 커졌어요. 스스로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 저 씨 1 세상에서 가장 높은 탑을 쌓자! 이 탑만 있으면 아무 위험도 없이 잘 살게 될 거야. 그리고 우리가 탑을 높이 쌓으면 하나님만큼 높아질 수 있지!

아 줌 마 2 맞아, 하나님도 우리를 함부로 벌주지 못할 거야!

나 레 이 셴 점점 욕심이 생긴 사람들은 아주 높은 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사 람 들 높이, 아주 더 높이 쌓자! 영차 영차! 힘 내!
하늘 끝이 보인다! 와야!! 영차!!

나 레 이 셴 사람들은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쭙보지도 않고 크고 높은 탑을 쌓았어요. 사람들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하루 하루 탑의 높이는 높아져 갔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쌓는 탑을 보셨어요. 하지만 하나님 눈에는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서로 다르게 하셨어요.

남 자 1 망치 좀 줘!

남 자 2 What did you say?

남 자 1 아니 뭐라는 거야?? 망치 좀 달라니까??!

남 자 3 와까 와까 꾸꾸??

남 자 4 호롤로 호롤롤로



33Page

남 자 5 아니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거야?? 갑자기 왜그래??

남 자 6 뽀 하오! 뽀 하오! 나니?? 나니??

.....

나 레 이 셴 사람들은 서로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오해는 점점 커졌고 큰 소동이 일어나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었어요. 하늘까지 닿으려고 탑을 쌓았던 것도 그만 두고 각자 흩어져 살게 되었어요. 그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그 무엇보다도 높고 훌륭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함께 쌓던 그 탑을 ‘바벨탑’이라고 부르게 되었어요.